



DMB단말 컨버전스 거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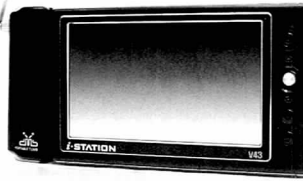
모바일TV시대 본격 개화 ... PMP · 디카 등 융합제품 인기

지상파DMB 서비스가 개시 한 달째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단말기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는 휴대 전용 단말기를 비롯해 USB형, 차량용에서부터 PMP·PAA·디지털카메라 등과 결합한 융합제품도 다수다. 가격도 천차만별. 시중에 출시된 제품의 경우 10만원대부터 50만원대의 가격군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출시된 제품들 중 컨버전스의 동향을 살펴봤다. 글 | 임일곤 기자(모바일타임스, igon@itn.co.kr)

지상파 DMB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제품에는 휴대 전용 단말기를 비롯해 PDA·PMP·디지털카메라·노트북과 융합한 제품들이 있다.

이 중 PDA 융합형 제품은 LG전자의 'PM80'를 꼽을 수 있다. 이 제품은 3.5인치 화면에, 배터리는 PDA만 사용시 8시간, DMB만 시청시 2.5시간 지속된다. 특히 MS의 '포켓 PC 2003(Pocket PC 2003)' OS를 채용, MS 오피스(MS

Office) 제품군을 PDA에서 이용 가능하며 PC와 연결해 E-Mail, 연락처, 일정 등을 관리할 수 있다. 'PM80'은 화이트와 블랙 등 2종의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무게는 155g. 이 제품은 출시된 지 얼마 안돼 하루에 1000대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이다.



디지털큐브, 지상파DMB수신기

한편 중소기업인 디지털큐브도 자사의 PMP에 외장형 지상파 DMB 수신기를 개발하는 등 이 시장 진출에 서두르고 있다. 디지털큐브는 외장형 지상파 DMB 수신기를 별도로 제작해 오는 2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큐브 PMP 제품은 USB포트를 사용해 PMP 본체와 연결, 일체형으로 휴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MP3P 제조업체들의 PMP 참여도 눈여겨 볼 만하다. 레인콤을 비롯해 코원 등이 지상파DMB를 탑재한 PMP를 제작하기로 나선 것. 세계적인 MP3P 명가로 성장한 이들 업체들은 애플의 아이팟나노와 중국의 저가 제품들의 압박을 극복할 대안으로 PMP를 꼽고 있다. '멀티미디어기기의 꽃'이라 불리는 PMP에 지상파DMB의 탑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전망된다. MP3P 업체 레인콤은 자사 PMP제품에 지상파 DMB타입재를 준비하고 있다. 레인콤측은 PMP보다 MP3P가 주력이지만 현재 MP3P시장은 성숙기라 보고 향후 게임과 연계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PMP개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MP3P업체인 코원도 자사 PMP에 지상파 DMB 탑재해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고선명 4인치 와이드(16:9) PMP 'A2'를 출시해 3개월 만에 3만 대 판매를 기록한 코원은 1월 말 'A2'에 지상파 DMB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듈(수신기)과 지상파 DMB 수신기가 내장된 PMP를 선보일 예정이다. 코원측은 향후 수요가 많은 내비게이션 탑재도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와 결합한 제품도 인기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카메라와 결합한 제품 '미니켓포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상파 DMB 수신기능을 포함한 제품으로 명함크기의 슬림한 디자인에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MP3P, PC카메라, 보이스레코더, 휴대용 저장 장치등 기존 미니켓의



삼성전자, 미니켓포토

6가지의 기본 기능과 지상파DMB 수신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525만 화소 이미지센서를 적용해 생생한 고화질 동영상과 선명한 정지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512MB 플래시메모리를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으며, 초당 30프레임의 레코딩으로 일반 디지털카메라보다 선명한 고화질 동영상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프리즘 렌즈 기술을 통한 광학줌 기능, 정지영상 촬영시 손떨림 보정 기능 등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슬림형 디자인에 가볍고 매끄러운 알루미늄 몸체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블랙, 와인, 실버 등 3가지 컬러를 채택했으며, 2.5인치의 넓은 LCD창에 쉬운 그래픽 메뉴를 구성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

픽트프린트 기능으로 컴퓨터 없이 프린터와 바로 연결해 사진 출력이 가능하고, 배터리 충전의 편리함을 위해 컴퓨터와 USB로 연결해 충전이 가능하며,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시 꼭 챙겨가는 휴대전화 충전기로도 사용 가능하다.

지상파DMB 수신이 가능한 노트북PC도 인기가 높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품을 내놓은 상태. 삼보컴퓨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의 X노트 익스프레스 LW20/LW40과 삼성전자의 센스Q30/센스X1이 여기에 속한다.

삼성전자의 센스Q30/센스X1은 무선랜 등 기존 노트북PC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화질 디지털방송을 이동 수신할 수 있는 DMB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또 비디오방송 녹화기능과 화면캡처 기능을 활용해 중요한 방송을 저장할 수 있으며 삼성 업데이트 플러스 기능이 탑재돼 인터넷을 통한 자동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특히 윈도우XP 운영체제(OS)에서 DMB 기능을 탑재해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WHQL' 로고를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상파 DMB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을 감안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노트북 PC 신제품군에 지상파 DMB 수신모듈 내장 모델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LG전자는 14인치 와이드 화면 노트북 'X노트 익스프레스' 시리즈를 출시했다. LG전자의 지상파DMB 노트북 3종은 인텔의 차세대 무선 플랫폼인 '쇼노마'가 장착됐으며 안테나와 신호처리를 별도의 모듈로 만들어 광디스크드라이브



(ODD)와 교체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가격은 모두 2백만원 미만이다.

USB형 수신기

지상파DMB 단말기 중 소형·저가형 제품의 대표주자가 USB형 수신기이다. 이 수신기는 노트북은 물론 데스크톱 PC에 연결할 수 있어, 시원한 화면과 든든한 배터리를 지원받는다. 최근 PC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보급형 노트북이 PC 시장을 잠식하면서 USB형 수신기도 인기다.

특히 노트북은 휴대용 TV로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한다. 풍부한 배터리는 물론이고, PC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영상 편집, 녹화 기능 등을 응용할 수 있다.

DMB는 320×240의 해상도로 영상을 재생하기 때문에 큰 LCD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볼 때는 픽셀이 깨져 보일 수 있다. 관련업계는 7인치 이내가 적정화면이라고 추천한다.

USB형 수신기는 노트북에 꽂는 방식에 따라 제품 모습도 다양하다. 휴대가 쉽고 이동 및 탈착이 용이한 메모리 스틱형에서부터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 수신기와 노트북이 분리된 형태도 있다.

초기 지상파DMB시장에서 USB형 수신기는 노트북에 초점을 맞춰 제품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DMB초기 시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완성형 셋탑 제품에 주력하지만, 향후 다기능 멀티미디어 제품에 자사 제품을 내장시키는 모듈 형태로 판매 경로를 바꿀 계획이다.

차량용 셋탑박스 및 일체형 차량용 수신기

차량용 DMB 제품은 수신 기능만 내장한 셋탑박스 형태와 액정화면을 갖춘 일체형 단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셋탑박스형은 기존 자동차용 아날로그 TV에 연결하면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수신기 형태, 여기에 7~8인치의 LCD 화면을 갖춘 제품이 일체형이다. 일체형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돼 출시되기도 한다.

차량용 단말기는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상파 DMB폰 출시가 늦어지면서 공급 과잉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DMB폰 출시 이전에 지상파DMB단말기 시장에서 차량용 제품은 가장 많은 제조사와 제품들이 몰리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품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 출시 초기 35만 원선에서 형성됐던 가격은 현재 20만원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10만원선까지 떨어진 상태로 유통되기도 한다.

차량용 단말기의 장점은 차량용 배터리를 이용해 안정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도 전력 걱정 없이 시청이 가능하다. 출퇴근길은 물론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고속도로에서 TV시청을 할 수 있다.

또 일체형의 경우, 내비게이션과의 융합면에서 친밀도가 강하다. 특히 주5일 근무 정착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내년 내비게이션 시장은 소비자 눈길을 끄는 디자인과 DMB 시장 확대에 따른 화면 대형화가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DMB가 최고의 파트너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조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K**

